

## 最善의 努力과 方法을 講究하자

[新民] 제2권 11호 (1926년 11월호)

(註: 한글날 제정을 주장한 글)

우리의 자랑거리고 첫 손가락을 꼽을 것은 우리의 글이다.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우리 祖上이 創作한 訓民正音이야말로 文字로서의 모든 條件을 具備한 完全한 文字이다. 이 民族的 자랑거리를 頒布한 것이 距今 四百八十年前 陰九月 二十九日이라 한다. 이 날을 우리 民族이 紀念치 않고 돌아볼 者 누구이라. 우리의 손으로 이 날을 永遠히 紀念하기에 우리는 아울러 最善의 方法과 努力을 다하여야 하겠다.